

투데이 칼럼

군사력 경쟁에 돌입한 일본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핵 안보, 국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계 군사력 1위는 국방 예산이 천 조 원에 가깝다고 해서 이른바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다.

이어서 인구와 예산 등이 뒷받침되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과 군사력이 비슷한 영국, 일본 등이 군사 강국이다. 그런데, 최근 안보 협력을 넓혀가곤 있지만, 한국에 경제 대상이기도 한 일본의 군사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2018년 불거진 한일 초계기 갈등은 한국 구축함에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한국 측 주장과, 한국이 먼저 공격용 추적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일본 측 주장이 맞서면서 촉발됐다.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도 우려됐다. 2023년 현재 세계 군사력 지수를 보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에 이은 세계 6위, 일본은 8위다.

모병제인 일본의 전체 병력 규모는 우리 절반에도 못 미치고, 특히 육상 전력은 우리가 한층 더 앞선다는 평가다. 한국은 북한군을 상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군의 전력이 상당히 높다.



정복규  
논설위원

그 다음에 기동화 되는 군단들이 기계화 부대로 편성되기 때문에 규모가 일본보다 크다. 일본은 유일하게 기계화 보병사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7기동사단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은 모병이 잘 안 된다. 하지만 해군과 공군의 사정은 다르다.

주요 해군 전력을 비교해 보면, 최신에 이지스함의 경우 일본이 4척이나 더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 역시 일본 자위대가 2척 더 많다.

또 우리는 3천 톤급 대형 잠수함이 2척이지만, 일본은 22척 모두 3천 톤급 이상인 데다, 미국, 중국도 보유하고 있는 2만 톤급 이지스함 2척을 건조하고 있다. 여기에 대형 호위함 이즈모함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다.

중국을 뛰어넘어 미국 다음의 막강한 해상 전력을 구축한다는 평가다. 해군은 질적인 차이와

양적인 차이를 다 보이고 있다. 일본이 더 우위라는 것이다. 특히 구축함 같은 경우 원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잠수함을 쫓는다는 의미다.

최상위급 구축함이 대개 5천 톤에서 8천 톤, 9천 톤까지 가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3배 정도 앞서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력 전투기, 제로센으로 미국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일본은 지금까지도 전투기 핵심 장비들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미국,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엔 영국과 함께 6세대 스텔스기 개발에 나섰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첨단 항전 장비 기술들을 계속 응용했다.

오히려 미국이 일본의 항공 전쟁, 항공 기술을 배워간 적도 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의 첨단화, 기술적 면을 비교해 봤을 때는 단순한 지수

만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군사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더 경제학 건 일본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1% 정도밖에 안 쓰고도 이 정도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2027년까지 GDP의 2%를 목표로 방위비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방비 규모로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군사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잠재적인 핵 공격 능력은 더욱 위협적이다. 일본의 군사 잠재력 중에서 계속 거론되는 것이 핵 능력이다.

플루토늄을 5톤 내외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핵무기를 만들면 1,000개 정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설계 기술과 핵 재처리, 기타 여러 가지 기계 전자 분야의 기술이 강하기 때문에 불과 몇 주 사이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북한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명분을 준 측면도 있다. 반대로 북한, 중국을 자극해 군비 경쟁을 격화시킬 거란 우려도 크다. 방위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군비 경쟁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게 오히려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지역 전체에서의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인 동맹, 협조를 강화하게 한다.

사설

어느 고창인의 고향 사랑

전주에는 전북 고창 출신 향우들의 모임인 '고우회(高友會)'가 있다. 모임이 결성된지는 이미 수십 년이 흘렀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 원로회원들이 자리를 떠났다.

결국 최근에 상대적으로 젊은 향우들을 대거 영입했다. 신규 회원들이 상계제를 하는 자리에서 천병로 원로회원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그는 30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50년이 훨씬 넘도록 고향 사랑에 열정을 쏟았다.

그는 전주의 상징인 홍지서림의 창업주이다. 홍지서림은 1963년 당시 방한 칸 딸린 관자집으로 시작하여 동문거리와 함께 책방 골목의 역사가 된 곳이다. 홍지서림의 발자취는 시대별 흐름까지도 읽을 수 있다.

70년대에는 인문학, 학습물, 대학교재 등이 많이 팔렸다. 1980년대를 지나 90년대에 들어서는 소설이나 시 등 문학 서적이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에는 자기 계발을 피하거나 주식이나 재테크 등 돈을 버는 방법을 소개하는 서적이 많이 팔렸다. 인터넷의 발달로 서적이 급격히 하락세를 타면서 어려운 시기기도 있었다.

실제로 98년도에 부모 위기가 있었다. 그 때 어느 작가가 인수를 했다. 홍지서림은 문학을 꿈꾸는 젊은 문학도들에게 문학 산실이 되어주었다. 한국 문단의 거장들의 숨결도 함께 묻어 있다. 전북 출신의 문학가들은 홍지서림이 본바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때 홍지서림에는 학기 초 참고서를 사려는 학생들이 서점 앞 큰 길까지 줄을 서는 바람에 경찰이 교통정리를 해야 할 정도였다.

중·고교생 시절엔 홍지서림이 만남의 광장이기도 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시간을 때우기가 좋은 곳으로 사랑을 받았다. 천병로 홍지서림 전 대표는 문화 사업을 통해 고향 사랑을 실천한 장본인이다.

전주시 보도블록 공사

전주 시내 미관 중심 보도블록 공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주시의 경우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시민들에게 익숙한 연말 풍경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22년 연말부터 현재까지도 여김없이 전주 시내 곳곳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도블록 공사를 앞당기고자 시한 바 있다.

물론, 이미 진행 중이거나 긴급한 공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벌이는 공사는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내년 예산이 삭감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시행하는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쓰는 기관과 단체마다 매년 연말 뒤 풀이 되는 게 이른바 불용 예산 다 쓰기가. 지자체는 이런 저런 이유로 쓰지 못한 예산을 연말에 몰아서 쓰기 위해 발주를 서두른다.

심한 경우 필요하거나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벌이는 게 예사다. 올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불용 예산으로 지적받을 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서 삭감될 우려 때문이다.

보도블록은 시민의 안전한 통행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칭찬받아야 할 보도블록 교체 사업이 시민의 원성을 사는 이유는 보여 주기식 미관 사업에 그치기 때문이다.

전주 시내 간선 도로를 벗어나면 깨지고, 어긋나고, 심하게 기울어져 위험한 보도가 허다하다.

경사가 심해 겨울철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보도도 많다. 전주시는 이런 곳은 방치한 채 대로변의 불룩을 교체하고, 미관에만 치중해왔다.

먼저 위험한 보도를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남은 예산은 내년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재언

개인정보유출,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란 이러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유출 등을 통해 수집·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 건수는 19만1,003건으로 결코 작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핸드폰 사용이 늘어나 편리함은 증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높아졌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영문이나 숫자를 조합해서 복잡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않아야 한다.

의심스럽다면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를 해 본 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명의도용이나 전화감

용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탈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불법 사이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다.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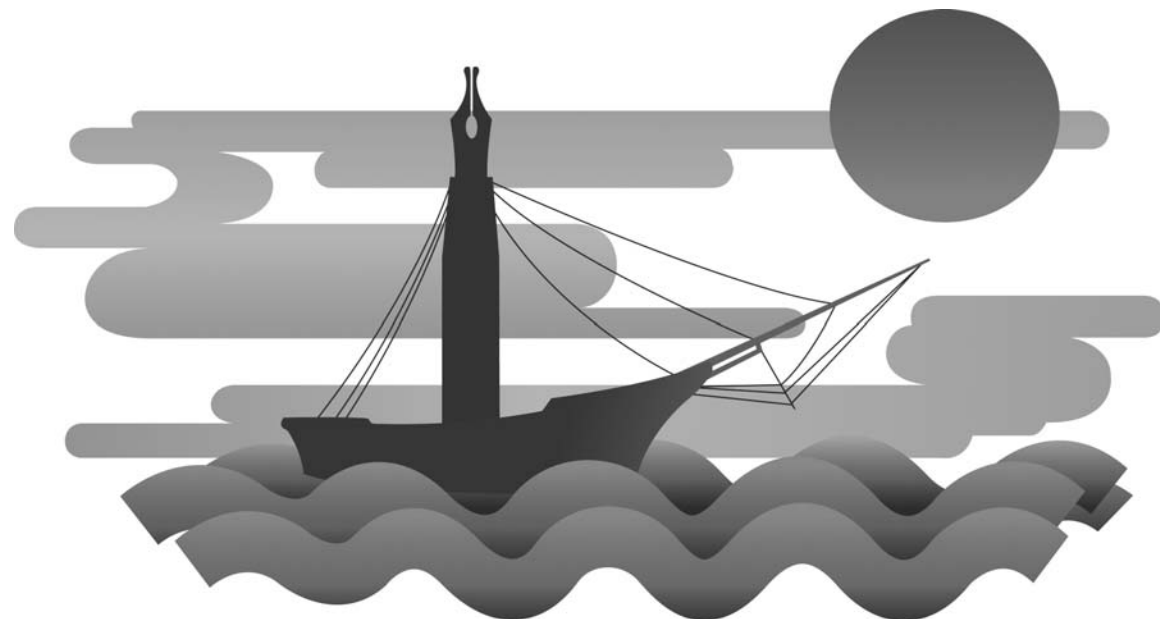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개인정보를 처리·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와 함께 개인정보 작성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지속적인 노출 모니터링 실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혜진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